

어떻게 다른지를 되묻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는 검역원이 제시한 검역기준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질병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밀랍을 가공해 만든 소비(소초의 개념)의 검역 기준은 2.5megarads의 방사선 조사이다. 이에 반해 정작 질병 위험성이 높은 꿀벌이 직접 만든 소비의 수입조건에 제시된 소독사항을 보면 10kGy(킬로그레이-megarads보다 1,000배 낮은 수준)의 감마선 조사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소비의 정밀검사 방법으로 제시된 우유검사 및 원인체동정 방식은 모두 80년대에 쓰였던 간이검사 방법으로 현재 쓰이지 않는 것들이어서 담당자의 소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상훈 고려양봉원 대표는 “소초와 소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담당자가 소비에 대한 검역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1990년 꿀벌 수입 자유화 이후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소비로 인해 가시응애 등이 발생, 국내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6. 9. 6 / 농민신문 -

중국산 벌집수입에 양봉농가 불안

검역원 “수입 불가피...철저한 기준으로 피해 방지”

중국산 소비(일명 벌집)수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양봉농가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봉협회(회장 전기현) 관계자 및 양봉전문가 및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 소비수입업자 등은 지난달 31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소비 검역관련 토론회를 갖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소비수입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기현 회장은 “현재 중국산 벌은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그 벌이 분비물을 뿜어 만든 소비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가축방역 정책에 구멍이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거 중국가시응애의 유입으로 양봉산업의 큰 위기를 겪은 만큼 성급한 소비수입허용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소비수입 불가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수입업자 측은 “현재 중국산 수많은 소비가 국내에 유입됐지만 질병감염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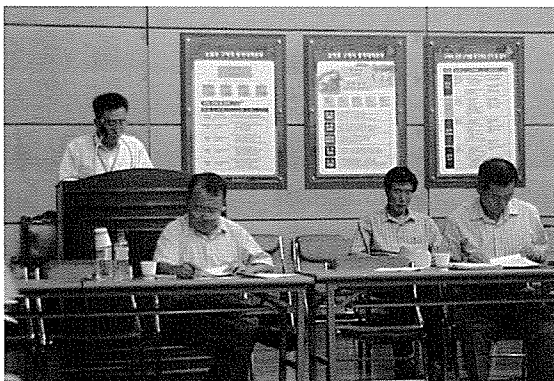
이 같은 공방은 한 때 고성을 주고받는 격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수의과학검역원의 이주호 축산물검사부장은 “소비는 현재 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수입되고 있으며 이를 수입 제한시키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철저한 검사기준을 만들어 이로 인한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협회와 학계 등 양봉산업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차적으로 소비수입 불가의 입장을 밝힌 양봉협회 측은 앞으로 검역기준 설정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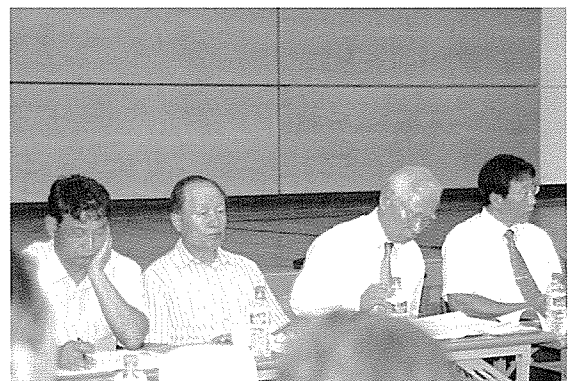
- 2006. 9. 4 / 축산신문 -



수입 소비 관련 설명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담당공무원들



관련학계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유심히 듣고 있다